80% 만족… 웹진 변화 '성공적'

조계종 포교원 〈법회와설법〉 만족도 살펴보니

설법 현대화 위해 무료제공
시사 자료 · 설법 문안 담아
"불교 각 분야로 확대했으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설법 현대화를 위해 조계종이 웹진 형태로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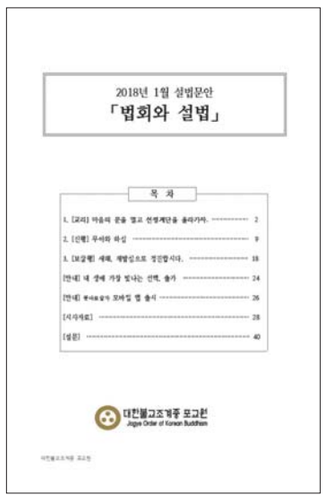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웹진 〈법회와 설법〉에 대한 인터넷 대상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회와설법〉은 법회 현대화를 위해 1995년 월간 〈법회와설법〉으로 발간돼 왔다. 2000년 〈법회와설법〉 출판사업이 조계종 출판사로 이관 후 잠시 발간이 중단됐지만 2015년부터 다시 포교원에서 E북 웹진 형태로 〈법회와설법〉을 제작, 매월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이메일에는 '교리' '신행' '보살행' 3개 분야에 대한 설법예시문안과 시사참고 자료 10여 건이 함께 보내진다.

2018년 현재 약 1000명의 스님들이 이를 구독하고 있으며, 최근 이메일 110여 발송 대상을 정비, 다시 1100명 규모로 발송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이번 설문조사는 30명의 표본이 참여했다. 법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4명(매우 도움 14명, 도움 10명)으로 표본 중 80%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웹진으로 변화 이후 전달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87%인 26명이 개선방식에 만족을 표했다. 특히 교리와 신행자료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3점(각각 4.34, 4.30)을 상회했다.

만족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경전 근거와 시사 자료를 연계한 문안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고민할 수 있었다' '건강, 재물, 명예 등 주제 속에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설법문안이 3개로 일요법회를 할 경우 다소 부족하다'와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산중의 일반사찰 법문 내용으로는 다소 어렵다'는 개선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상봉 조계종 포교원 종책팀장은 "향후 원고 서술형식을 '서술식'에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예로 든 '개조식'으로 변경해 문안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원고 전달방식을 이메일 발송 뿐만 아니라 '포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겠다. 설법문안 내용은 알기 쉽고 감동적으로 집필하고 특히, 경전근거와 예화를 풍부히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회와 설법〉을 구독하는 대학생전법단 혜성 스님은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웹진 발행을 불교계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보다 시대에 맞는 설법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웹진 〈법회와 설법〉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에 '법명, 사찰,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신청하면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02)2011-1913

세살 나눔 여든까지! 나눔 새싹 자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어린이집서 나눔교육

500여 천진불들의 고사리 손길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눔저금통을 꽉꽉 채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이 2017년 운영한 어린이 나눔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10곳의 원아들이 총 400여만 원을 나눔저금통에 눌러 담았다. 모금액은 난치병어린이 치료지원 및 소외이웃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나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요즘, 어린이 나눔교육에서 나눔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눔저금통을 통해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옆의 친구와 간식을 나눠 먹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스님)이 2017년 운영한 어린이 나눔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10곳의 원아들이 총 400여만 원을 나눔저금통에 눌러 담았다.

장난감을 양보하는 것부터 동전을 모아 아픈 친구를 도와주고, 배고픈 친구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일까지 돕는다.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착한나눔상장'을 수여해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다른 친구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음을 알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박진형 기자

카툰 · 시사토론… BBS TV 신규 프로 '다채'

지찬 스님, 카툰쇼 '어라 통했네' 편성

무술년을 맞아 BBS 불교방송 TV가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어라 스님'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툰작가 지찬 스님이 BBS TV의 진행자로 나선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되는 '지찬 스님의 어라? 통했네!'는 지찬 스님이 시청자들의 일상 고민들을 카툰을 통해 소통하고 성찰케 하는 일종의 카툰쇼다. 지찬 스님 특유의 잔잔한 카툰은 시청자들에게 따듯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불교적 안목에서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BBS불교방송만의 시사 프로그램, 'BBS화쟁토론'이 새해부터는 TV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 BBS화쟁토론'은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화 · 수요일 오전 8시40분과 오후 5시 20분, 약 5분정도 방송되는 '영상으로 만나는 빠알리대장경'은 그동안 책으로만 접했던 빠알리대장경을 카툰 영상으로 재현한 것으로, 불자들이 좀 더 쉽고 생생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에는 '깨달음의 16단계 각산 스님의 안반수의경'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성불수행경전 〈안반수의경〉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에는 체계적 호흡 명상,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명상법이 소개된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다룬 '인생, 만남'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보광사 주지 보명 스님의 강의를 담은 '보명 스님의 서산대사 선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방송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BBS 지찬 스님의 '어라? 통했네!' 자료사진.

불교인재원, 5차 경전과 조사어록 강좌

1월 22일~4월 16일 조계종 전법회관서

불교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는 강좌가 진행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5차 강좌를 1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교인재원은 부처님 가르침과 조사 스님들의 어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아 매년 3개월 간격으로 강좌를 열어왔다.

이번 제5차 강좌에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한국동양철학회장)가 〈화엄경〉을 주제로 청량 스님의 〈화엄경연의수초〉 중 '화엄현담 의리분제' 부분을,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미륵삼부경〉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금강삼매경〉을, 한국명상지도자회 이사인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이 〈돈오입도요문론〉 각각 강의한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혼탁한 세상이다. 중도 정견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보고 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 불 밝힌다

포교원 어린이 · 청소년 지원
고시생 위한 마음케어도 눈길

불교 각계가 어린이 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해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 사찰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매년 어린이 청소년 분야와 새터민, 장애인 분야 등 포교 각 분야에 걸쳐 전법중심도량을 선정하고 포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한 취지에서 어린이 청소년 분야 22개 사찰이 집중적으로 우수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사찰은 서울 관음사, 백운암, 봉은사, 불광사, 진관사, 경기 정각사, 흥국사, 금강정사, 인천 수미정사, 인천불교회관, 대전 광제사, 충남 석림사, 광주 선덕사, 전북 참좋은우리절, 울산 해남사, 경북 관운사, 대원사, 영전사, 청량사, 경남 구룡사, 진불선원, 제주 불탑사 등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통계청 조사에서 불자인구 감소 조사 외 다른 조사에서 불자가 적게 줄었다는 결과가 있지만 만족할게 아니다. 어린이 청소년 분야는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회복이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원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우수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된 어린이 처오년 전법사찰 종무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수전법중심도량을 대표해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더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알고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마가 스님이 이끄는 자비명상은 노량진 고시촌의 청년들의 마음케어도 시도한다. 자비명상은 1월 25일 노량진서 공무원 시험 등으로 지친 청년들을 위한 청년 희망센터 '마음충전소'를 개소한다. 이 날 개소식엔 마가 스님의 마음챙김 법회와 붓다라마, 그레이스 신 등의 나눔콘서트도 진행된다.

마음충전소 소장 소임을 맡게 된 자비명상 등명 스님은 "마음충전소가 혼자 다 짊어지고 애쓰는 버거운 친구에게는 마음충전소 공동체로 마음의 의지처를, 자꾸 떨어져서 좌절한 친구에게는 무상의 지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진로가 맞지 않는데 헤매는 친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공부하기 싫고 게으른 친구에게는 집중력과 정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청년들을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은 동국대 평생교육원 마인드힐링지도사 자격취득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노덕현 · 박진형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